

제목 : 동물실험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번 202211457 이름 채민기

1. 서론

최근 들어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실험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실험동물은 대학, 병원, 농장뿐만 아니라 제약 회사, 화장품 회사, 식품 회사 등 많은 곳에서 동물실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물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학의 발전이나 현재로서는 동물실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구조가 다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도한 동물실험을 강행하는 등 윤리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 문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크게 몇 가지로 논하도록 하겠다.

2. 본론

2.1 소제목

본 글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무분별한 동물실험에 반대한다. 우선 동물실험의 결과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7년 10월에 서독에서 진정제, 수면제로 시판됐다. 탈리도마이드는 동물실험에서는 아무 부작용이 없었으나 임산부들이 복용하고 팔다리가 짧거나 없는 기형아를 낳았다. 이처럼 동물과 사람의 피부는 다른 구조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성과 실용성 부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2.2 소제목

본 글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무분별한 동물실험에 반대한다. 실험동물의 절반은 의약품 관련 실험에 이용된다. 의약품 규제 시험은 백신과 같은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다. 의약품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에 실험동물들이 사용된다. 영국의 생어 연구소는 2022년까지 실험동물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현대 기술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동물실험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국제단체인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FI)'의 정책 이사를 맡고 있는 팔머 박사는 "동물실험에서 얻는 결과는 사람과의 일치율이 20~40%에 그치지만 대체실험에서는 90%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물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한 실험은 현대사회에선 비윤리적인 실험이 될 수밖에 없다.

3. 반론 및 재반론

3.1 반론

이러한 필자의 입장에 대하여 동물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동물실험이 없었다면 의학적 발전이 없었을 것, 인공 피부도 실제 피부가 아니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반론을 펼 수도 있다.

3.2 재반론

위의 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반박할 수 있다. 실제로 동물실험이 의학적 발전을 가져

온 것은 인정하지만, 맹목적으로 동물실험의 결과를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러 부작용을 통해 입증되었으므로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생명의 목숨을 앗아도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공 피부에 관한 주장도 이미 많은 나라와 회사들이 동물실험을 중단하고 있고 효과도 동물실험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동물실험은 현대사회의 기술과 관점으로는 무분별한 학대밖에 될 수 없다.

4. 결론

지금까지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근거를 통해 논하였다. 그것은 동물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현대사회에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기술들이 많아진 것들이 근거였다. 동물실험은 의학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간의 이익으로 인해 동물을 무분별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5. 참고문헌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303242114085>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7065